



북한 특수전부대의 실체



송유창
(삼육대학교 교수)

약 20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부대

최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중실험함으로써 내외의 시선은 한반도에 새삼 집중되고 있다. 물론 미증유(未曾有)의 절대권력 세습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등으로 북한의 비이성적 통치구조와 체제의 특성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만큼 유명세(?)를 얻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와 같은 과거 북한의 동맹국들도 한반도의 급변 상황 발생 개연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런 반평화적인 군사증강책동이 또다시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 공포를 내면으로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당국이 공(功)을 들고 있는 이른바 ‘특수전부대’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육성되고 있으며, 실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의 차원을 넘어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의 모든 부문이 그러하듯이 북한당국의 내부 실상에 관련된 정보는 이중삼중의 감시통제장치 때문에 외부에 그 실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전부대’의 구체적인 실상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문자 그대로 “정규전 이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에 발생한 청와대 홈페이지와 농협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도했던 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전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특수전부대는 핵, 미사일, 화생방 등을 포함하여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약 20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정찰총국’(국장: 김영철)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직은 당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조직은 대남 공작임무를 수행하면서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주요인물 암살, 남북대화, 파괴공작, 태업주도 및 최근에는 사이버전 임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대가 바로 11군단이다. 이전에는 특수8군단, 경보교도지도국 등으로 불리다 최근에는 11군단으로 개칭되었는데, 그 산하에는 저격여단, 항공육전여단, 경비병여단 등이 있다. 이 중 ‘저격여단’은 주요인물 암살, 핵심시설 파괴 등 아군의 군사전략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육전여단’은 제2전선 형성을 통해 아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경보병여단’은 작전급과 전술단위제대에서 저격여단과 항공육전여단과 대동소이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특수전부대는 해군과 공군에도 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군사요충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조기에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1964~1975년에 치러진 월남전에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화력을 가진 미국이 별다른 장비도 없이 신출귀몰하게 전투를 수행하는 베트콩의 유격전 앞에서 패전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비정규전과 특수전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은 1991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치루어진 43일간의 ‘이라크전쟁’에서 강력한 공중우세력 앞에 사막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이라크군을 보면서 “소부대를 이용하여 적의 뒤통수를 치는 타격 없이는 승전을 보장할 수 없고, 공중공격에서 지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파괴할 특수전부대의 증강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우친 것으로 보인다.

北특수전부대의 각종 침투수단 조기 탐지능력 강화해야

이후 북한당국은 일반 병종부대들의 개편을 거듭하여 현재는 특수전병력을 북한군 전체 119만명중 17%를 차지하는, 약 20만명까지 증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를 국군 중심지역에 침투시켜 많은 전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부대원들이 “소총과 수류탄 하나로, 60mm 박격포 한 문으로, 7호 발사관(휴대용 대전차 로켓포) 한 발”로 우리의 중심지역에 침투하여 원전 등 전략시설을 파괴하거나 교란한다면, 일시에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조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중국적 목적을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대들은 한·미 연합전력과 대비할 때 현격한 항공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타격대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쟁 발발 전이나 전쟁초기에 우리의 비행장시설 등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공중침투와 전역탄도미사일(TBM, Theater Ballistic Missile) 등 북한지역 공격무기체계의 원활한 작전능력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장비면에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소화기, 수류탄, 7호 발사관, 박격포 등을 휴대하고 전술적 목적에 맞게 침투인원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부대원들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생역량과 무생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즉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죽어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등 모든 것을 전장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전쟁 발발 전이나 전시 초기에 우리의 전략시설과 군사시설을 타격하여 작전을 조기에 마비시키고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기 위해서는 침투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침투유형별로 보면 공중침투는 AN-2기를, 해상침투는 고속침투정이나 공기부양정 등 각종 수상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AN-2기는 300여대이며 한 대당 8~12명이 탑승한다고 가정할 때, 단번에 공중으로 2,500명에서 3,700명까지 침투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AN-2기는 최고속도 258km/h, 순항속도 190km/h, 항속거리 845km, 적재연료 1,200리터, 상승한도 4,500m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기체가 비금속 물질로 되어 있어 레이더 탐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체에 스텔스도료까지 칠했다는 첩보까지 있다.

또 기체의 위장색 자체도 상부는 3색 위장색(짙은 녹색, 연한 녹색, 적색의 결합형태)으로, 하부는 지난 해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하늘색으로 변경한 사실이 최근 군 정보당국 분석 결과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AN-2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격멸하기 위해서는 경계근무 초병들과 국가 주요시설들에 대한 경비와 경계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의 침투장비 식별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보고를 통한 즉각적인 조치만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인민군 보위총국, 국가보위부, 김일성군사정치대학, 보위간부학교,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및 국방대학 학생 등으로 조직된 이른바 ‘폭풍군단’이라는 명칭을 가진 검열부대를 편성하여 국경지역 검열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전부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런 특수전부대의 증강움직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현재와 같은 비대칭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전투력 발전을 위한 대폭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까지 치달던 1976년의 ‘8.18 판문점도끼만행 사건’ 당시에 중단된 미루나무의 절단작업이나,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시의 성공적인 작전은 우리 특수전부대가 평시 부단한 교육훈련으로 이에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국지도발작전이 개시되면, 적 특작부대를 일격에 조기 격멸할 저격요원 양성과 이에 상응한 저격총기 등 최신화된 특전장비의 확충과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전에 대비하여서는 평시부터 한·미 연합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우리 특수부대 타격목표의 정확한 표적분석 및 이를 타격할 수준 높은 연합훈련과 침투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신화된 침투수단의

확보는 적의 TMB 식별 및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비대칭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민·관·군 통합방위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정기적으로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협조기관별로 구체적으로 훈련과 행동으로 옮겨지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특수전부대원들이 후방지역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들과 가장 많이 대치하는 병력들은 우리 향토사단 장병들과 예비전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특수전부대 위협에 대비한 침투유형별 교육훈련과 예비군 훈련기간 중 대공신고요령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한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신고망이 보장된다면, 현재 상존하고 있는 위협이 훨씬 감소되고 국가 안보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적 열매를 따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바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중북세력의 준동과 남남갈등의 현재화로 안보의 소홀함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 중 일부는 “국방은 군인들만의 몫”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계도노력이나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속적인 핵개발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무모한 김정은 정권의 ‘불장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다”는 굳건한 안보의식과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자행될지 모르는 북한 특수전부대 요원들의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잠언(箴言)을 새삼 피부로 절감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북한**